

# 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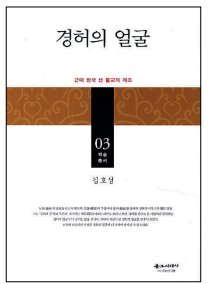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1 ~ 6/17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유마경과 이상향	화공	민족사
2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곽철환	불광출판사	7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최혜자	운주사
3	붓다순례	자현	불광출판사	8	마음이 담긴 길을 걸으라	일운	담앤북스
4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9	불교에서 본 우주	강승환	운주사
5	도교대학 불교학과	정상교	동아시아	10	내 손 안에 부처의 손이 있네	틱낫한	예담



## 삼수갑산행은 “은둔이자 입전수수”

### 경허의 얼굴

김호성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2만5천원



2012년, 근대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 불리는 경허 성우 선사의 열반 100주년을 맞아 관련된 논문 한 편이 <불교평론-52호>에 실렸다. 논문의 제목은 '경허의 주석과 삼수갑산'이다. 이 논문은 일종의 '필화'가 됐고 논문을 실었던 <불교평론>은 폐간에 이른다. 다행히 <불교평론>은 이듬해에 복간됐다. 이처럼 '경허'는 아직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우리 한국불교의 중요한 테마이다. 책은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김호성 교수가 바라본 '경허'이다.



경허 스님 진영

### 경허의 '삼수갑산행' 의미 고찰 4편의 논문과 3편의 에세이 실어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여

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입전수수인가, 아니면 윤창화가 말하는 것처럼 은둔인가? 저자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각기 패러다임 1과 패러다임 2로 보고 하나하나 분석해 나간다. 그리고 자신의 또 다른 시각을 패러다임 3으로 제시하는데, 은둔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저자로서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행으로 본다는 점에서 '입전수수'를 부분적으로 긍정한다. 저자는 패러다임 1이 경허의 전 생애를 모두 입전수수로 보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입전수수의 길이 하강의 길이라면, 경허 스님은 그 하강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결사와 선설의 복원 등을 통해 근대 선불교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등 상승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패러다임 2에 대해서는, 경허의 삼수갑산행의 이유를 물으면서, 경허 스님의 시를 통해 내면세계를 살펴보고자 한 방법론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개인적인 차원의 이유만을 묻고 교단사적 차원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1부 제2장의 '사효의 윤리와 출가 정신의 딜레마'는 제자인 한암 스님이 스승 경허 스님의 삶을 정리하고 평가한 '행장' 속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허 스님의 행위를 한암 스님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불교의 출가 정신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글이다.

제2부 제1장의 '정혜계사문에 나타난 수행 이념'에서는 '정혜계사문'을 통해 경허의 두 가지 수행 이념을 살펴본다. 첫 번째는 바른 수행론의 제시이며, 두 번째는 도술 상생을 원하는 까닭에 대한 해명이다.

제2부 제2장의 '정혜계사문 규례에 나타난 수행 이념'에서는 정혜를 담음과 도술 상생의 문제와 정도왕생과 도술 상생의 문제를 다룬다.

책 <경허의 얼굴>은 '경허 보기'에 대한 일종의 정리이자 새로운 문제 제기이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경허의 얼굴'이라고 했다. "이 책은 내가 본 '경허의 얼굴'에 대한 증언이다. 물론 나는 내가 본 '경허의 얼굴'만이 경허의 진짜 얼굴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보다는 '경허의 얼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리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라는 것이 저자의 변이다. 저자는 경허의 삼수갑산행이 은둔이자 동시에 중생제도를 위한 길(입전수수)이라고 보았다. 권력의 길인 도성 안에서의 불교계에서는 성스러운 존재로 추앙받던 경허 스님이 북방의 삼수갑산으로 간 것은 떠난 쪽에서 보면 은둔이지만 저쪽에서 보자면 속의 세계, 중생들의 세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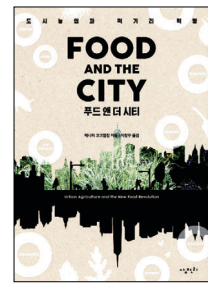
저자가 "앞으로도 이렇게 경허의 얼굴을 보고 왔다면 나만의 견문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처럼 책은 그 동안의 경허 논의에 대한 작은 결론이며, 또 다른 결론을 기대하는 '제시'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 세계는 지금 도시농업 중

### 푸드앤더시티

제니퍼 코크릴링 지음 | 이창우 옮김  
삼천리 펴냄 | 2만4천원



현대 인류의 식품 체계는 포장식품과 패스트푸드, 농약과 항생제, 방부제의 도음을 얻어진 산업적 식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 인류의 먹거리는 대부분이 가까운 자연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산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식품체계가 인류의 건강, 환경과 에너지, 생태계 안전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위협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책은 현재의 식품체계가 빚어내는 사회적 불안 요소들과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농업'에 관한 이야기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식품 체계의 대안을 찾아 가는 기나긴 여정을 담고 있다. 5년에 걸쳐 전세계 도시농업과 먹거리 혁명의 현장을 발로 뛰며 찾아내고,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로 부터 들은 많은 이야기와 현장 사진들

통해 마음만 먹으면 인류의 식생활과 도시의 모습을 얼마든지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다국적 농업회사와 대형식품 체인점에 포위된 지구 곳곳의 시민과 혁신적인 지방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느덧 그런 힘겨운 '싸움'의 결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 그저 화단 가장자리나 화분에 오이나 상추를 길러 먹는 일뿐만 아니라 닭을 기르고 꿀벌을 치고 포도를 수확하여 판매용 와인을 생산하는 일이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선 책의 전반부는 글로벌 식품 체계와 생산, 소비자, 식량 위기의 현실을 각종 통계와 자료를 통해 한눈에 보여준다. 몬산토아 카일을 비롯한 '빅 에그(농업 대기업)',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대형 체인점, 이른바 녹색혁명과 유전자형성이 20세기 내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특별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를 주는 장면일 뿐이다.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깊어지고, 도시농업의 형태와 내용, 아이디어도 훨씬 다양해졌다. 198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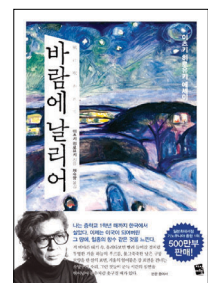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루푸드'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는 확산되고 있고,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에 밀려난 농민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도시농업이 그저 한때 반짝이는 녹색 '유행'이 아니며, 이 운동의 열기가 더해간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제3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식량 생산과 체계를 혁신하는 일이 시민운동의 차원을 넘어 이제 도시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21세기에는 국가나 국민적 의제보다는 도시 문제가 변화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것이다. 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도시농업은 도시가 계획되는 방법, 도시가 작동되는 방식, 도시의 외관과 인식, 냄새까지 모두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도시혁명'이다. 2008년 유엔인구기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촌에서는 농촌보다 도시에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바로 지금, 도시농업이 도시 공간을 설계하고 이용하는 방법, 식량을 공급하는 방법, 식량 생산자와 지구를 대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 바람에 날리어

이츠키 히로유키 지음 | 채숙향 옮김  
지식여행 펴냄 | 1만3천9백원



'춘소일각가옥천금(春宵一刻價六千金).'  
꽃이 향기롭고 달이 으스스푸레 비치는 봄밤의 한 시각의 경치는 육천금과 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이 시구처럼 싱그러움 청춘의 아름다움을 비유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그렇게 퇴색되지 않는 청춘의 반짝임에 대한 찬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어진다. 1960년대 일본 문단의 슈퍼스타였던 이츠키 히로유키의 에세이 <바람에 날리어>도 마찬가지다. <청춘의 문>이라는 장편소설로 한국어

말 알려진 이츠키 히로유키는 만년에는 불교에 심취해 일본 류코쿠 대학에서 불교사를 전공한 불자이다. 실제 최근 NHK에서 제작하는 '21세기 불교로의 여행'의 취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불자 이츠키 히로유키의 초년 에세이 <바람에 날리어>는 1967년 <주간 요미우리>에 연재한 글들을 모은 것으로 대부분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이미 40여 년이 지난 글이지만 그가 천착한 청춘은 시간을 넘을만한 힘이 있다. 이츠키 히로유키는 세상을 바라보는 데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진보라는 관념. 또 하나는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 중 '청춘'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누구나 후자의 입장으로 접근한다. "오즘 젊은이들은 불쌍해." 대부분의 어른들이 자신의 청춘 회고를 이룬 대사로

매듭짓는다. 그리고 묘하게 잔학한 눈빛으로 청년들의 어깨를 두드린다. 이츠키는 그런 말을 부정하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정말 옛날이 좋았다는 걸까? 나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요즘 젊은이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적은 없었다. 동시에 부럽다고 느낀 적도 없었다.' 아날로그적 감수성으로 충만한 이츠키 시대의 청춘과 물질문명의 혜택을 입은 디지털 세대의 청춘은 별반 다르지 않다. 누구나 거치는 청춘이라는 시절은 아름답고, 활기차면서 아프고 쓰라리다. 빛나는 청춘의 날이 가고 '인주'라는 삶의 균살이 불고 '실재'라는 인생의 주름이 생길 때쯤이면 우리는 자신만의 잣대로 세상과 남을 재단한다. 이츠키는 말한다. 나의 젊은 날을 뒤돌아보며 현재를 비판하는 건 고집관념이고, "우리의 젊은 날은 이랬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난센스라고.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문호 이츠키가 청춘이라는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지금, 여기를 살라"는 진리였다. **신성민 기자**

## 철학, 역사, 문화를 중흥무진 오가며 신화에 가려진 인간 붓다의 참모습을 만나

2012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사찰의 상징 세계』의 저자 자현 스님이 명쾌한 언어로 흥미롭게 풀어낸 붓다의 생애!

# 붓다순례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인간 붓다의 위대한 발자취

이 책에 담겨 있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붓다와 불교 이야기

- 붓다는 4월 8일에 탄신하신 게 아니다.
- 마야부인은 7일 만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 녹아원의 첫 설법 장소는 잘못된 것이다.
- '자등명 범등명'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 붓다의 탐은 살아 계셨을 때도 유행했다.
- 사리쌍수는 그물 칠대를 매기 위한 것이다.
- 붓다의 열반일은 2월 15일이 아니다.

불교 전문 사진작가 하지권의 인도 성지 순례 사진 100여 장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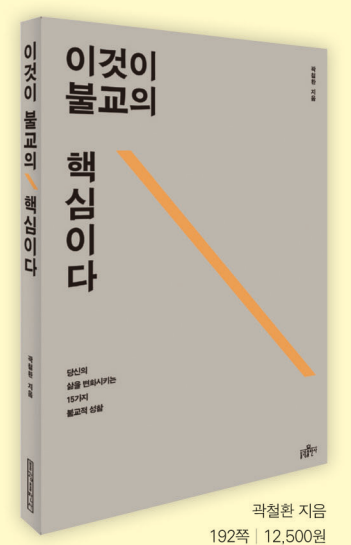
글 자현 | 사진 하지권  
352쪽 | 윌클러 | 18,000원

## 이것이 불교의

### 핵심이다

놓아버림,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시공 불교사전』의 저자 곽철환이 '고'에서 '열반'까지 원고지 500매로 압축한 불교의 핵심!



곽철환 지음  
192쪽 | 12,500원

###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한 10년쯤 그저 기다릴 생각으로, 자신을 믿고서 천천히 걸어가라

생존 경기를 벌이고 있는 현대인에게 보내는 산속 스님의 응원 메시지



지안 지음  
232쪽 | 12,000원